

## II. 2014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예시문제

### 1. 예시문제

예시문 (가)와 (나)는 일제 식민통치의 흔적으로 지금의 경복궁 광화문 뒤편에 남아 있던 구 조선총독부 청사를 보존할 것인지 아니면 철거할 것인지의 문제를 두고 1990년대 초반에 있었던 논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글이다. 사실 서울 한복판에서 지방 소도시에 이르기까지 일제 식민통치 권력과 관련이 있는 건(축)물들이 아직도 광범위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를 건물을 보존·활용해야 하는지 또는 철거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현명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문제 1] 제시문 (가)와 (나)에 나타난 입장을 비교하고 요약하시오. (35/100점, 400자 내외 : 350~450자)

[문제 2] 제시문 (가)와 (나)에 나타난 각각의 입장을 참고하여 자신의 관점을 정하고, 그 관점에 입각하여 일제 식민통치

의 흔적으로 남아 있는 건(축)물 등을 어떻게 평가·처리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 논하시오.

(65/100점, 1000자 내외 : 950~1050자)

(가) 일제가 우리나라를 불법적으로 강점한 1910년 이후 그들은 즉각 용장하고도 위협적인 '침략 종합청사'를 지어 식민통치의 구심점으로 삼아 우리 민족을 억압하려 했다. 일제는 장소를 물색한 결과 우리 민족의 대표적 궁궐이며 5천년 역사의 정기가 모인 경복궁을 혐고 그 자리에 총독부를 짓기로 결정했다. 활기찬 민족사의 맥을 끊음으로써 우리 민족의 자존 의식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긴 조치였던 것이다.

건축 당시 조선총독부 관리들은 경복궁의 4천 칸을 철거해 일부를 고급관리들의 별장이나 심지어 화장실로 이용하기도 했다. 경복궁의 일부인 흥례문, 정청소, 금천교를 비롯해 각종 전각, 정자, 호수 등을 마구잡이로 훼손하거나 철거해 조선총독부 청사로 흡수하였다. 총독부 청사를 건축하는 동안 3·1 운동 등 우리 민족의 항일 저항투쟁이 치열하게 지속되어 10년이나 걸려서야 비로소 건물이 완공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조선총독부 청사는 결코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유적·유물이 아니다. 이 건물은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우리 민족의 훌륭한 문화유산들을 일제가 고의적으로 훼손시키면서 세운 많은 건물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 사례인 것이다. 더욱이 이 건물은 경복궁을 유린했다는 사실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5천년 민족사의 기맥을 절단·마멸시켜 소생불가능하게 하려는 풍수지리학까지 동원되어 지어졌다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하는가? 일본의 역사학자들을 만나면 이 건물의 칠기 여부를 묻고 "왜 아직 헐지 않았느냐"며 먼저 걱정을 할 정도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철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를 내세우던 간에 민족의 역사 앞에 죄를 짓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건물은 조속히 그리고 반드시 철거되어야만 왜곡된 민족시도 올바르게 복원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우선 모든 건축물은 '건축성'과 '역사성'을 동시에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존될 필요가 있다. 일단 세워진 건물은 그 건축사적 가치 외에도 정치, 사회 또는 문화사적 내용이 더해지기 때문에 보존의 가치가 높아지게 된다.

비록 조선총독부 청사가 우리 민족이 압박과 설움을 받으며 지낸 일제 시대에 식민통치 권력에 의해 지어진 건물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 따로 존재해온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지어진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주요 건축물과 연결고리를 갖고 존재해 왔다는 건축사적 의의를 갖고 있다. 게다가 이 건물은 사실 일제에 의해서만 지어진 것이 아니다. 비록 건축의 주체는 일본이었지만, 이 건물에는 한국인 건축가 박길용(화신백화점 설계자)과 수많은 우리 기술자·노동자들의 노력도 들어갔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나무와 돌이 주재료로 쓰였다. 압록강의 나무, 창신동의 화강석, 그리고 금천의 대리석 등 거의 모든 자재가 우리나라 것으로 쓰였다. 결국 이 건물이 일본 식민통치 권력의 침략적 의도만을 담고 있으며 우리 민족의 역사와는 상관이 없다고 보고 철거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이제는 조선총독부 청사도 그 나름대로의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재인식해야 할 것이다. 건축물은 단순히 돌과 나무들로 지어진 차가운 구조물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가 전개되었던 공간이자 그 역사의 슴결이 깃들어 생명력을 가지게 된 것임으로, 결국 이를 부순다는 것은 그 건물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는 인간의 역사를 죽이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하물며, 아무리 조선총독부 청사라고 해도 그 안에 한국인의 손길과 이 땅의 자연이 깃들어 있음을 깨닫는다면, 아무리 좋은 뜻이 있어 철거한다 해도 그것은 절대로 역사의 진보나 왜곡된 역사의 복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2. 출제 기본 방향

논술고사 예시문제 출제의 기본 방향은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가. 첫째. 무엇보다도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 논술고사는 고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제시문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 자신의 견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주어진 제시문 내의 정보와 자신의 생각을 종합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정립하는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 나. 둘째. 본 시험은 특정 전문 분야에 치우치거나 편향적인 입장으로 기울지 않도록 대부분의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만 한 보편적인 사회적 이슈들을 주제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문제의 소재와 유형, 제시문의 유형 등에 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쳤다.
- 다. 셋째. 고교 내신과 그에 따른 교육과정 상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를 출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 논술고사는 정해진 고등학교의 내신제도와 그에 따른 교육과정을 얼마나 충실히 이해하였는가를 평가할 뿐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로 우리 사회의 여러 현실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심과 그에 대한 창의적인 생각까지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 3. 출제 의도 및 문제 해설

### 가. 출제 의도

역사 인식의 문제가 거창한 형이상학적 차원의 것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현실적 차원의 문제이며, 따라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문제임을 학생들에게 환기하려는 의도 속에서 출제하였다.

'나' 또는 '우리'의 편협한 시각만을 고집하지 말고 타자와의 관계성 형성이라는 맥락에서 새롭게 접근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번 논술고사에서는 역사적 유산의 평가와 보존의 문제에 대해 반드시 '우리 민족'의 것이어야만 한다는 특수성의 논리와 비록 '타자'인 식민통치자가 남긴 것이라고 해도 역사를 가질 수 있다고 보는 보편성의 논리가 충돌하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남아 있는 일제 식민통치기의 건축물을 두고서, 이를 보존할 것이냐 또는 철거할 것이냐 등의 서로 다른 주장 속에 이처럼 특수성과 보편성의 상반된 논리가 전제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따라서 두 제시문을 살펴보면서 상반된 두 주장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찾아보고, 각각의 글에서 건축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일제 식민통치기 건축물 처리 문제라는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쟁점에 대해, 학생들이 제시문의 관점을 토대로 하나를 택하거나 또는 그 이외의 다른 관점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논리적인 주장과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서로 대립된 두 관점을 살펴보면서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세우고 그에 따라 합리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출제 의도를 바탕으로 이번 논술에서는 제시문의 정확한 이해, 주장 및 논리의 차이에 대한 명료한 분석, 관점 제시의 명료성, 논리 전개의 일관성, 표현의 효과성 및 적절성 등을 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특히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도 중요하게 평가하려고 하였다.

### 나. 제시문 해설

제시문 (가)는 1991년 6월 21일 한겨례신문의 "쟁점 이렇게 본다—옛 조선총독부 철거" 기사 중 한국사 전공 교수의 글을 논술고사의 성격에 맞게 수정하고 가다듬은 글이다. 전형적인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조선총독부 청사의 철거를 주장하는 글로, 한국을 선량한 피해자로 설정하고 그 반대편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악의적 침략과 수탈을 강조하는 이형대립적인 인식론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식민지 시기의 역사가 '타자'인 일본의 침략에 의해 파괴·왜곡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정상적인 우리 민족의 역사로 보기 어렵다는 태도를 갖고 있다.

역사 유산의 보존·철거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유산만이 보존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일제 식민통치 권력과 같이 남아 남긴 것은 철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특수성의 논리를 펼치고 있다. 그러한 논리의 연장선에서 조선총독부 청사와 같이 식민통치 권력에 의해 세워진 건물들은 반드시 철거되어야만 민족사의 파괴·왜곡을 바로잡고 정상적인 상태로 '복원'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1991년 6월 21일 한겨레신문의 "쟁점 이렇게 본다-옛 조선총독부 철거" 기사 중 건축사 전공 교수의 글을 논술고사의 성격에 맞게 수정하고 가다듬은 글이다. 역사와 유산이 높은 평가를 받고 보존되기 위해서는 누가 주도하여 남긴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사와 유산 그 자체로도 보존될 가치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우리 민족에 의해 만들어진 자랑스러운 것이어야 한다는 제시문 (가)의 논리와는 상반된다.

이처럼 피해자 대 기해자라는 이분법적 관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일제가 남긴 과거의 유산까지도 우리의 것이며 잊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조선총독부 청사를 건축할 때 많은 조선인 기술자와 노동자들이 참여하였으며 이 땅의 재료들로 충당되었던 역사적 맥락을 감안한다면, 이 건축물을 우리의 역사와 삶을 담고 있는 건축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조선총독부 청사로 대표되는 식민지 시기의 건축물들도 우리의 역사와 삶의 온기를 담고 있는 것으로서 보존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 다. 문제 해설

제 (1)은 제시문 (가)와 (나)에 나타난 각각의 입장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였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두 입장의 구체적 차이와 그 기저에 놓여 있는 쟁점 인식의 차이에 대해서 명료하게 비교 분석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문제 (2)는 지금도 광범위하게 남아 있는 식민지 시기의 역사 유산을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 학생 스스로 자신의 입장을 세우고 그에 따라 합리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시문 (가) 또는 (나), 혹은 그 밖의 다른 가능한 관점을 택하여 문제를 폭넓게 바라보고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식민지 시기의 역사 유산에 대해 상반된 두 입장의 주장과 근거를 살피면서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세우고 이에 따라 합리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주장과 근거를 답습하기보다는, 자신의 창의적인 생각이 더해질 때 보다 설득력 있는 의견 제시가 가능할 수 있음을 물론이다.

### 4. 답안 작성의 가이드라인

#### 가. 최근 논술고사의 출제 경향

각 대학들의 논술고사 출제가 지나치게 긴 지문과 복잡한 문제를 내는 데에 치중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논술고사에서 학생들이 지문과 문제 자체를 이해하는 데만도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어 정작 논리·창의적 능력은 제대로 발휘하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 나. 2014년도 상명대학교 논술고사의 특징

상명대학교 2014년도 논술고사 출제에서는 이러한 현행 논술고사 출제경향의 문제점을 지양하여 학생들을 배려하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대한 명료한 지문과 문제들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리·창의적으로 사고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 다. 답안 작성의 요령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모범답안을 제시하기보다는, 학생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한 관점을 창의적으로 결정하고 그 입장에서 일관된 논리를 전개할 수 있도록 한다. 주어진 예시문제의 답안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략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문제 1]** 제시문 (가)와 (나)에 나타난 식민지 시기의 역사 및 이를 반영하는 건(축)물에 대한 관점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학생 자신의 언어로 양자의 차이점을 비교·분석적으로 요약하여 제시하는 것이 관건이다.

**[문제 2]** 일제 식민통치의 흔적으로 남아 있는 건(축)물을 어떻게 평가·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제시문 (가) 또는 (나)의 관점이나 그 밖의 가능한 관점을 선택하여 자신의 입장에 따라 일관된 논리를 구체적으로 전개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관건이다. 가능한 예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 제시문 (가)의 관점을 택한 경우 : 우선, 이 제시문의 기본 시각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제시문은 우리가 지금 보존해야 할 역사와 유산은 민족 고유의 것이어야만 한다는 특수성을 강조하는 시각을 취하며, 그렇기 때문에 조선총독부 청사를 반드시 철거하고 경복궁을 복원할 것을 강조한다는 점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시각에 따라, 지금도 남아 있는 일제가 지은 건(축)물들을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을 최대한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학생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구체적 논증과 사례를 제시하여야 하며, 또한 이 관점과 대비되는 다른 관점에 대한 비판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2) 제시문 (나)의 관점을 택한 경우 : 우선, 제시문의 기본 시각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 제시문은, 식민지 시기의 역사와 이를 반영하는 건축물을 보존하는 문제에 있어, 우리 고유의 것인지 남의 것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라면 기억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보편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라는 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조선총독부 청사도 역사적 건(축)물로 보존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제시문 (나)의 시각에 따라, 현재까지 남아 있는 일제가 지은 건(축)물들도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을 최대한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학생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구체적 논증과 사례를 제시하여야 하며, 또한 이 관점과 대비되는 다른 관점에 대한 비판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3) 제시문 (가) 또는 (나) 이외의 다른 관점을 택한 경우 : 제시문 (가)와 (나)의 양자택일에서 벗어나, 그 이외에 학생 자신의 창의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또 다른 관점을 설정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 경우, 자신이 나름대로 택한 시각이 제시문 (가) 또는 (나)의 시각과 어떻게 다르고 이 두 시각보다 어떤 점에서 더욱 타당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입장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최대한 논리적으로 충실히 전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구체적 논증과 사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